

「韓國目錄規則」에 對한 몇 가지 質疑

朴 熙 永

(東國大學校中央圖書館 司書課長)

우리나라에 새로운 圖書館學이 導入된지 얼마 되지 않고 또한 韓國圖書館協會가 創設된지 日殘할에도 不拘하고 圖書館을 運營하는데 必要하고 또 韓國의 圖書館界를 發展시키는데 必要한 여러道具와 아울러 많은 圖書館學關係 參考圖書를 出版하고 있음에 對하여 고마움을 禁하지 못하는 바이다.

目錄規則은 分類表와 함께 圖書館資料를 整理하는데 對於로 必要한 二大基本道具의 하나이다. 韓國圖書館協會에서는 가장 重要한道具인 目錄規則을 「韓國目錄規則」이란 標題로서 1964년에 初版을 發行하였고 二年後인 1966년에 修正版을 編纂하여 이를 補完하고 있는데 全國의 各圖書館은 이것에 依하여 所藏하고 있는 資料를 整理하고 있으며 이것을 使用하지 않는 圖書館이라 할지라도 많이 參考하고 있다. 이 修正版이 發行된지도 어언 6年이 經過하였는데 그間 이 規則을 土臺로 해서 實際 資料를 整理하면서 判斷하기 어려운 곳을 몇 곳 發見하게 되었는데 그 몇 곳이란 規則의 條文보다도 條文을 理解할 수 있게 提示하고 있는 例들 中에 例示된 곳에 따라 差違가 있어 實務에 從事하는 筆者로서는 相違한 것 中에서 어떤 것을 基準으로 해서 整理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判斷하기 어렵기에 이에 誌面을 빌려 疑心의 곳을 問疑하니 이에 對하여 專門委員會 目錄分科委員會의 權威있는 解答을 바라는 바이다.

(標目的 選定)

KCR p.51에 있는 法令에 對한 規則을 보면

65. 法令

法令集은 國名을 標目으로 하고 법령집을 副標目으로 한다.

라고 있으며 이에 對한 例로서

한국, 법령집

大韓民國法令集

이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例로는

박, 일경, 편.

(正陽) 六法全書, 朴一慶 等編

이라고 있고 이것과 같은 圖書로 보이는 圖書를 KCR p.71에는 이들 共著書로서 取扱하여 다음과 같이 例示하고 있다.

(正陽) 標準六法, 朴一慶 等編.

法令集을 目錄함에 있어 우선 標目을 選定하고자 規則에 規定된 것을 찾을 때 KCR 目次의

二. 標目形式

B. 團體機關

1. 政府機關

이렇게 政府機關에서 찾는 것이 妥當한지의 問題는 고사하고 例示되어 있는 것과 같이 標目이 세種으로서 即特殊標目, 編者, 그리고 書名의 세形式의 標目으로 例示되어 있어 어떤 것을 擇하여 目錄해야 할지 난처한 것이다. 朴一慶 等編의 六法全書는 政府機關에서 發行한 것이 아니라서 朴一慶 編으로 標目을 定하였는지를 알고 싶고 또한 같은 朴一慶 等이 編한 六法全書와 標準六法과는 어떤 點이 달라서 하나는 編者를 標目으로 하였고 또 하나는 書名을 標目으로 하였는지 알고 싶다. 이에 對하여 圖協에서 發行한 張一世著 「韓國目錄規則解說」 p.173에 보면 「앞에서 예를 든 文敎法典」도 그 좋은 예의 하나인데 훗히 이런 경우 編者를 기본기입으로 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이다」라고 述하고 있으며 또 「그러나 法令 또는 例規에 대하여 注釋을 붙인 것은 法令이나 例規의 原文은 일부분이고 注釋者の 개인 견해가 대부분 반영된 것이므로 注釋者名을 기본기입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있는바 KCR p.51에 例示된 六法全書는 모든 法令을 編集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박, 일경, 편이라고 編者를 標目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 법령집이라고 特殊標目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標目的 形式)

標目的 形式에서 個人 한 사람의 著書인 때 標目的 形式은 KCR p.2에 있는

소, 두산.
과 같이 하겠지만 編著書가 共著書인 경우의 標目形式에 있어서 編著書에서는 p.53에 있는 것과 같이 이, 한기, 편.

이라고 하면서 共著書인 때에는 p.3에 있는 것과 같이 차, 낙훈.

이라고 하고
차, 낙훈, 공저.

라고 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고 싶다. 共著書의 標目으로 採記하지 않은 또 한 사람의 共著者에 對한 副出카드에는 「공저」를 附記하면서 基本카드의 標目으로 記入한 共著者에는 「공저」의 表示를 하지 않는 까닭을 알고 싶다.

또한 編著書인 때 p.53에 보면
이, 한기, 편.

이라고 이름과 편이라고 附記한 사이에 「,」를 하는 것 이 옳은지 아니면 p.76에 있는 것과 같이 원, 영의, 편.

이라고 이름과 편이라 附記하는 사이에 「.」를 하는 것 이 옳은지 알고 싶다.

다음에는 外國의 團體名을 標目으로 記入할 때 두가지의 相違한 例示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KCR p.50에 있는

일본. 코쿠리쓰 콕카이토쇼강.

全日本出版物總目錄, 昭和 30年版.

이고 또 하나는 p.84에 있는

日本色彩研究所.

色의標準. 改訂新版.

이다. 外國機關에 對한 標目的 形式이 이 두가지 例示에서 어떤 例를 基準으로 해서 目錄을 作成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副書名의 取扱)

副書名의 定義에 對하여 圖協에서 編한 圖書館用語集 p.55에 보면

부서명(副書名)

正標題를 補充하기 위해 附加한 書名 또는 本書名을 부연하는 書名으로서 主書名의 다음에 繼續한다.

라고 定義하고 있고 또한 張一世 著 「韓國目錄規則解說」 p.270에 보면

부서명一本書名 다음에 있으며 그 本書名을 설명하는 성격을 가진 부분을 말한다.

라고 解釋하고 있다. KCR에서 書名으로 보여지는 것 들을 取扱한 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p.2 이, 현구, 1905—

摸索의 途程; 李軒求 評論集.

p.4 한, 영순, 1941—

101番地의 女僧; 용문골 女僧의 獄中告白手記.

p.65 펜코프스키, 올레그

모스크바의 안개; 소련二重間諜의 暴露手記

p.19 박, 계주, 1913—

春園 李光洙: 그의 生涯, 文學, 思想,

p.77 한국, 보건사회부.

保健社會白書: 國民保健과 社會副社

p.25 안, 인희, 1927—

中學校生徒의 要求와 指導, 思春期 特徵을 中心으로,

p.19 박, 하산.

鬪魂의 별은 살아 있다, 實記 朴烈評傳; 抗日思想家의 燦然한 鬪爭記.

이상의 例와 같이 「, : ;」의 세 種의 記號를 使用하여 本書名과 副書名을 區劃表示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表示한데에는 그럴 理由가 있을 것이나 筆者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 例中에서 p.19에 있는 例示인

박, 하산.

鬪魂의 별은 살아 있다, 實記 朴烈評傳; 抗日思想家의 燦然한 鬪爭記.

를 보면 萬一「;」이 副書名을 表示하는 記號라면 「鬪魂의 별은 살아 있다」에 이어서 「實記朴烈評傳」까지가 本書名이 되고 「抗日思想家의 燦然한 鬪爭記」가 副書名이라고 볼 수 있던가 아니면 「鬪魂의 별은 살아 있다」와 「實記朴烈評傳」의 두 標題의 內容을 갖인 圖書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現品을 보아야 하겠지만 「實記朴烈評傳」을 혹시 別書名으로 取扱하면 어떠할지 알고 싶다. 副書名의 取扱을 張一世 著 韓國目錄規解說에서 찾아보면

p.88 김, 정식, 1903—1935.

(決定版) (素月全集) 뜻있을 그사람: 新收錄詩, 感想, 書簡, 小說全載.

p.116 박, 계주, 1913—

春園 李光朱: 그의生涯・文學・思想

이라고 되어 있는 바 副書名에 對해 [述하는데 그의 生涯・文學・思想을 끊는 記號를 하나는 「,」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으로 되어 있는 바 어떤것을 基準으로 해야할지 알고 싶다.

(卷次表示)

KCR에서 卷次를 表示한 例를 보면

p.72 손, 진태.

韓國民族史概論, 孫晋泰 著. 上卷.

p.79 武林掌故叢論, 26集, 丁丙編.

p.66 한국. 문교부.

한국동식물도감, 제5권. 식물편.

목, 초본류.

라고 되어 있는바 張一世 著 規則解說 p.206에 보면 「記入體 가운데서 著者表示 바로 다음에 그 卷次를 기입한다」라고 있으며 KCR p.72의 것과同一한 손, 진태.

韓國民族史概論, 孫晉泰著. 上卷.

이라고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p.202에 「그러나 기본 기입으로 쓰여진 성명과 著者表示로 쓰인 著者表示는 생략하여도 좋다」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著者表示가 不必要할 때에는 書名에 이어서 卷次를 表示하게 되어 있다. 上記한 KCR의 세 가지 예를 보면 著者表示가 있을 때에는 「.」으로 끊고 卷次를 表示하고 있고 著者 表示가 없을 때에는 「.」으로 卷次를 繼續된 것으로 表示하고 있는 바 卷次 表示는 著者 表示가 있고 없고의 關係가 되는지 그리고 卷次 表示는 「.」으로 끊고 나서 表示하는 것인지 아니면 「.」로 繼續해서 表示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p.79에 예시된

武林掌故叢論, 26集, 丁丙編.

에서의 丁丙編이라던가 또한 p.66에 있는

한국. 문교부.

한국동식물도감, 제5권. 식물편.

목, 초본류

에 있어서의 식물편은 바로 앞의 表示한 卷次의 內容을 說明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면 더욱이 제5권 식물편 목, 초본류는 제5권이 식물편인데 식물편에서도 목, 초본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卷次에 對한一次的二次的 說明이 아닌가 생각되며 만일 그렇다면 二重의 說明에 있어서의 記號가 「.」 또는 「,」 아니면 「:」이여야 하는지 알고 싶다. 또한 KCR p.70에 예시되어 있는

대한과학도서간행회.

과학실험도해사전; 화학실험편.

에 있어서 화학실험의 取扱이 副書名인지 아니면 이것 은 과학실험도해사전이 여러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卷次로 取扱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以上 KCR에 예들 中에서 疑問이 되는 몇 가지를 質疑하는 바 本誌面으로의 解答을 바라는 바이다.

청사진

누구나 계획을 갖는다. 일을 해 나갈 계획도 한다. 그 사항들이 이루어졌든 아니든 다시 하곤, 또 그 목표에 가까우려 그를 나름으로 애를 쓰는 것을 본다. 자신에게서도,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혹은 누구나에게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혼란 일이다. 인간에게 인간이 속한 집단에, 크고 작은, 옳고 그름,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계획이란 것을 들 주위에 감돌게 마련이다. 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할 수 있다는데에서 인간의 독특성을 발견할 수 있으리란 것은 수긍이 가는 말이다.

청사진(青寫眞)이란 말이 있다 청색사진의 춘말이고, 영어의 blue print에서 비롯된 언어이다. 다 아는 일이지만 말의 뜻은 이러하다. 간단한 선도(線圖) 등의 복사에 쓰는 사진의 한 가지로서, 제이철염(第二鐵鹽)이 햇빛에 비추어 제일철염으로 화원되고 그것이 다시 적혈염(赤血鹽)과 반응하여 푸른 빛을 나타내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보통 구연산(枸櫞酸)이나 수산(蘇酸)의 제이철염과 적혈염과의 혼합

수용액을 종이에 빌라서 그 감광지에 원화를 부착시켜 햇빛이나 전등에 대어서 밀착시킨 것을 이름이다. 예서 이의 원리, 과정과 내력에 관한 설명을 더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과학적 의미의 청사진이 아니라, 일반화된 청사진의 속성같은 것을 음미해 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획과 청사진은 상통하는 개념일뿐만 아니라 후자가 더욱 보람이나 삶의 진취적 의미와 진보라는 관념과 밀착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의 시민으로 또 한 전문단체에 속한 회원으로 도서관인 집단은 허황되지 않으면서 내실을 다져갈 수 있는 청사진을 시의(時宜)에 알맞고 미래지향적인 기저위에 세워야 되지 않을 것인지. 전문적 사서로서의 자질의 일대 부상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소속 집단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위한 더 많은 역학적 노력의 집중화, 혹은 전문적 단체만이 할 수 있는 유호적 절한 사업의 전개등에 관한 공익성을 뛰운 원대한 blue print를 마련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결국 이 나라의 문화창조의 핵심기관으로 도서관이란 생명체로서의 기관을 끌어 올릴 과제는 개척기 도서관인들의 가장 큰 사명이므로.

(S.W. HAN)

KAL 코너